

# 광주 광천사거리 '교통지옥'...분산망 시급

교차로 혼잡지속 길고 교통량 많아 신호 대기 평균 149.5초 가장 높아 교통량 증가 '백화점·아파트 주변' 도시철도·BRT 도입 교통대책 마련

광주에서 차량 통행이 많고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곳은 광천사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광역시 교통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천사거리의 평균 제어지체값은 149.5초로 광주 교차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천사거리에 이어상무교차로(평균제어지체 139.4초), 백운광장(138.2초),

광주대입구(127.1초), 풍암사거리(122.8초), 광주역(114.8초), 문화사거리(112.9초), 임동오거리(109.3초), 계수교차로(108.1초), 상무지구입구(108.0초) 등이 혼잡도가 높았다.

평균제어지체란 교차로에 도착한 차량이 진입하면서부터 교차로를 벗어나 제속도를 낼 때까지 걸린 시간의 평균값을 말한다.

광천사거리 교차로에 운전자가 도착해 빠져나갈 때까지 평균 149.5초가 걸린다는 것이다.

광천사거리는 첨두시(하루 중 차량의 도로점유율이 가장 많은 시간) 교통량이 9292대(PCU계수, 승용차 환산 단위)로

혼잡도가 매우 높았으며, 혼잡 지속시간도 하루 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천사거리 주변은 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는데다 최근 주상복합아파트까지 잇따라 들어서 교통량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평균제어지체가 15.7초 늘었고, 첨두시 교통량 1188대·혼잡 지속시간 1시간 증가했다.

광주 신세계, 옛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혼잡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광천사거리 일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천상무선 도시철도, BRT(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주시는 광천권역에 교통량이 1일 14만대에서 29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광천상무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천상무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광천권역과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연장 7.78km의 동서축 횡단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6925억원으로, 오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BRT 도입에도 본격 착수했다. 내년 2월까지 '광주권 BRT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개발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BRT 도입은 도시 내부 교통개선 뿐만 아니라 광주권 광역연계형 교통전환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BRT는 광주공고~경신여고~광천사거리~농성역~백운광장~구 대동고 간 8.67km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정거장은 8개로 예정돼 있다. 전체 운행거리를 정차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으로 나눈 표정속도는 시속 25~27km로, 기점부터 종점까지 30~40분 소요될 전망이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 광주시 "30일까지 농민공익수당 받으세요"

총 8400가구 지급대상 확정 농가당 광주선불카드 60만원

광주광역시가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난해 대비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를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31일까지 지급했던 것에 비해 1개월 앞당긴 것으로 농번기를 앞두고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농민공익수당'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광주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지난해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족·근중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

된다. 광주시는 지난 3월24일~4월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거쳐 최종 8400농가를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30일까지 농민공익수당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며 광주선불카드 지급된다. 수당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2026년부터 지급되는 농민공익수당의 사용기한은 1년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농민공익수당의 조기 사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분실·미사용 등으로 카드에 남아있는 자투리 잔액을 모아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 부터 농민공익수당 카드 사용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성아 기자



금남로 차없는 거리

주말인 지난 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차없는 거리 '걷자잉' 행사에서 시민들과 학생 등이 오징어 게임 무궁과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광주식품대전, 역대 최대 1만8000명 방문 '성료'

24개 바이어 수출 상담액 180억 시민·관광객 참여 경영행사 인기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인 '광주식품대전'이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이달 1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5 광주식품대전'은 관람객과 바이어 1만8452명(지난해 대비 1044명 증가)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은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로, 기업 간 거래(B2B)와 소비자 대상 거래(B2C)를 아우르는 산업전시회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함께하는 광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도약'을 주제로 농수산물, 식품기기, 가공·냉동식품, 카페·베이커리 등 300여개 기업이 450여

개 부스에서 다양한 식품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식품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상담회, 벤처 캐피탈 투자상담회도 함께 열려 참가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다.

수출 상담회에서는 독일, 싱가포르, 필리핀 등 24개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총 180억원 규모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또 현장에서 일본, 벨라루스의 기업과 차류·우리밀·전통장 등 품목으로 총 6건 약 8억3000만원 규모의 수출협약(MOU)을 체결, 실제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국내 유통상담회에는 롯데홈쇼핑, GS리테일 홈쇼핑 등 24개 국내 유통사 MD(상품기획자)가 참여해 100억원의 상담액을 달성하는 등 지역 식품업체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

된 벤처캐피탈 투자상담회는 24개 참여업체와 5개 투자사가 상담을 진행해 77억원의 투자 상담액을 기록하는 등 초기 창업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에 역할을 했다.

박람회 기간에 '광주주류관광페스타'와 'Gwangju Tea&Cafe Show(티앤카페쇼)', 'G-Festa(지페스타) 봄 광장 문화축제'가 동시 개최돼 관광객들은 한자리에서 다양한 행사를 즐기는 '일석사조'의 효과도 누렸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영 행사도 열렸다. 친환경 K-FOOD 창업 요리대전에서는 일반부 '대상'에 국립순천대학교 파도이팀(전도희·정미진·오윤서)이, 대학부 '대상'은 수찬상팀(황은찬·박수민·이중엽)이 수상했다. 안우성 셰프가 지휘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한 '전국 초밥왕 대회'는 현장을 달구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성아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열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행사에서 참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서울서 사전행사 '인기'

한강공원에서 포토부스 운영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이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수목의 매력을 담은 포토부스를 운영하는 등 부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수목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특별 포토부스는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포토존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며 수목의 매력을 체험한 시민들은 '수목이 이렇게 세련되고 감각적인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지현 기자

현장에는 비엔날레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돼 전시 일정과 프로그램을 안내했으며, 참여자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해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엠지(MZ)세대의 자발적 참여가 두드러지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 대한 수도권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8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전통 수목의 깊이와 현대 수목의 확장을 담아내며, 세계적 수목 예술 축제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식중독 안전 강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기온상승과 장마철 등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을 맞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모든 도축장의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고기를 대상으로 오염 지표 세균 등 미생물 검사에 나선다.

이번 검사는 도축장의 위생 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농협축산물공판장을 비롯한 전

남 20개소의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도축장을 대상으로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살모넬라균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권장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도축장의 위생 감독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기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설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며,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장이 축산물 유통의 첫 단계인 만큼,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도축검사 외에도 주 1회 이상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등 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축장 이후의 유통단계인 축산물 가공장, 판매장도 수시로 수거검사를 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지현 기자